

## 식민지 조선의 『일리아스』 읽기\*

— 연애소설로 읽은 노자영 연구

김 헌\*\*

### [초 록]

서구 문학의 최고 고전인 『일리아스』가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어떻게 읽혔는가? 이 글은 춘성 노자영의 『이리엣트니야기』에서 그 대답을 찾으려고 한다. 이 작품은 『일리아스』를 한반도에 최초로 소개한 작품이다.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른바 세계문학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했는데, 이런 흐름에서 『일리아스』가 조선의 독자들에게 소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작품은 호메로스 원작의 번역은 아니며, 일종의 요약본이다. 노자영은 일리아스의 줄거리에 트로이아 전쟁의 발단이 된 황금사과와 파리스의 선택 이야기를 앞에 붙였고, 10년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메넬라오스가 헬레네와 함께 귀향하는 행복한 결말의 이야기를 끝에 덧붙였다. 이런 재구성의 과정에서 노자영은 ‘일리아스’를 연애소설로 읽어냈고, 자신의 작품에 ‘연애소설’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실제로 그는 호메로스의 원작에 없는 연애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교수

소설의 요소들과 ‘사랑지상주의’(또는 ‘연애지상주의’)의 이념을 집어 넣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노자영은 1920년대 출판계의 상업적 요청에 적극 부응하였던 것이다. 삼일운동 이후 한층 엄해진 출판의 검열을 피하고 대중의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연애소설의 출판이 사업적 전략으로서는 적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대중적 욕망과 노자영의 출판 전략은 ‘연애의 시대’로 표현될 수 있는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문화적 흐름의 산물로 봐야 한다.

## 1. 들어가는 말

중국 문화가 우리 민족 문화 형성에 끼친 영향은 다른 그 어떤 문화보다도 강력하며, 이를 부인하긴 어렵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우리 문화 현상은 그런 역사가 무색할 정도로 서구의 영향을 짙게 받은 상태다. 이런 문화사의 반전은 언제부터 시작되어 본격화되었을까? 조선 시대 말 실학자들이 청을 통해 서구 문물을 어떻게 받아들일려고 노력했는지도 눈여겨보아야겠지만, 일본의 침략 여파와 일본 패망 이후에 한반도에 전면적으로 진입한 미국(북한의 경우에는 소련)의 영향력이 가시적일뿐만 아니라 지배적이다. 우리는 영향력이 컸던 직간접적인 서구 문화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서양의 대표적인 문학 고전인 『일리아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수용에 주목하고자 하되, 탐구의 범위는 식민지 조선으로 국한한다.<sup>1)</sup>

1) 이 글은 2019년 5월 22일 수요일에 “식민지 근대와 고전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열린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국내학술대회에서 「식민지 조선의 『일리아스』 읽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글을 다듬은 것이다. 당시 유익한 조언을 해준 허선애 박사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논문을 심사해준 세 명의 심사위원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이를 통해 근거가 약한 부분을 수정 보완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일본의 『일리아스』의 수용 양상을 간략하게나마 논문에 추가하여 논의의 바탕을 보강할 수 있었다. 이점에서 이 글은 일본 자료들을 검색, 검토하여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던

주지하다시피, 『일리아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설로 꼽히는 트로이아 전쟁을 배경으로 아킬레우스의 분노와 다른 영웅들의 전사적 활약에 초점을 맞춘 그야말로 영웅 서사시이다. 흔히 호메로스에 의해 창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설령 그가 실존했고 실제로 작품을 썼다는 입장을 고수하더라도 그의 창작이 그에 이르는 수백 년에 걸친 구전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이후의 수많은 사람들의 손질이 가해졌으리라는 추정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sup>2)</sup> 어쨌든 『일리아스』는 텍스트로 문자화되고 탁월한 문학 작품으로 거듭나면서 그리스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형성에 핵심이 되었다.<sup>3)</sup>

---

장문석 교수(경희대)와 번역을 도와준 홍종욱 교수(서울대)에게 큰 빛을 지고 있음을 밝힌다.

- 2) 이와 같은 문제를 흔히 ‘호메로스 문제’(homeric questions)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가장 먼저 이 문제를 다룬 사람은 오천석이다. 그는 『세계문학결작집』(1925, 한성도서)에 실린 「일리아드」 축약 번역의 머리말에서 호메로스의 실존과 작품의 작성에 관한 학문적 논의를 5쪽 분량에 소개하였다. 서구에서는 1664년 도비낙(F. d'Aubignac)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볼프[Wolf, F. A. (1795), *Prolegomena ad Homerum*, Leipzig: Reclam], 빌라모비츠[Wilamowitz-Moellendorf, U. von (1884), *Homerische Untersuch*, Berlin] 등이 이 문제를 제기하여 호메로스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 문제에 관한 비교적 최근의 연구는 Heubeck, A. (1974), *Die Homerische Frage*, Darmstadt; Nagy, G. (1996), *Homeric Questions*, University of Texas Press; West, M. (2011), “The Homeric Question Today”,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55 (4), pp. 383-393 등을 참조.
- 3) 서기 1세기경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작가의 『호메로스적 알레고리』의 문구는 호메로스의 작품의 무게를 잘 보여준다. “어린아이들은 유아기의 교육을 받을 때 호메로스에게 양육되며 포대기에 싸이듯이 그의 시구에 싸인다. 우리는 마치 그의 시구가 우유라도 공급해주는 양, 우리의 영혼에 시구의 물을 준다. 호메로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을 시작하여 점차 어른으로 자라날 때 곁에서 있고 우리가 활짝 피어날 때 함께 피어난다. 우리는 늙을 때까지 결코 그를 싫증내지 않는다. 우리가 그를 옆으로 치워두자마자, 곧바로 그를 향한 갈증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호메로스가 가지는 한계만큼이 우리의 삶의 한계라고.”(알베르트 망구엘(2007), 김현 옮김(2012),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이펙트』,

그런데 호메로스의 작품이 끼친 영향은 고대 그리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리스 제국 이후 등장한 로마 문명 속에서도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를 통해 계승되었음은 물론, 기독교의 성립 과정, 특히 신약성서의 서술에서도 그의 작품의 영향력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이다.<sup>4)</sup> 기독교가 국교가 된 유럽의 중세문명 안에서도 그의 영향력은 여전했으며, 중세를 탈피하면서 “고전으로”를 외쳤던 르네상스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호메로스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와 작가들의 ‘모방과 경쟁’(imitatio et aemulatio)는 끊이지 않는다. 아마도 호메로스에 대한 애착과 연구, 동경과 모방은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허언이 아닐 정도다. “모든 위대한 문학작품은 『일리아스』이거나 『오뒷세이아』이다”라는 프랑스의 소설가 레몽 크노의 말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서구 문명사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진 이 고전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왜 받아들였을까? 이 ‘받아들임’은 여러 차원에서 이야기될 수 있다. 그리스어(이오니아 방언)로 창작되고 문자화된 『일리아스』가 원전에서 직접 번역되든<sup>5)</sup>, 일본어나 영어, 등의 외국어 번역을 중역한 것이든<sup>6)</sup>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 가장 가시적인 ‘받아들임’이며, 간단한 내용 소개의 기사나 정보 제공의 문건, 다양한 수준의 ‘리라이팅’ 서적들을 비롯해서<sup>7)</sup> 전문 학자들의 논문에 이르기까

---

서울: 세종서적, pp. 329-330에서 재인용).

- 4) MacDonald, D. R. (2015), *The Gospels and Homer*, London: Rowman & Littlefield 등 참조 바람.
- 5) 현재까지 그리스어 원전 번역은 천병희의 것(1982, 종로서적. 이후 여러 차례 수정 보완되어 단국대 출판부, 숲에서 출판)이 유일하다.
- 6) 정병조·김병익(공역 1970, 동화출판사), 한용우(1974, 대일출판사), 이상훈(1976, 동서문화사), 김병철(1978, 박영사), 김재상(1982, 을유문화사) 정해근(1987, 정암출판사), 조운제(1994, 계몽사), 김인구(1998, 대현출판사), 강영길(1999, 홍신문화사) 유영(2011, 범우사) 등의 번역이 있다.
- 7) 가장 대표적인 책은 강대진(2010), 『일리아스, 영웅들의 전장에서 싹튼 운명의 서사시』, 그린비이다.

지 『일리아스』의 받아들임의 증거가 된다. 한국어로 ‘인쇄’된 정보가 독자들에게 읽히고, 나아가 초, 중, 고, 대학(원)과 같이 교육현장에서 교재로 사용되며, 대중 강연과 방송(영화,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 등의 소재가 되는 것도 중요한 ‘받아들임’의 현상이다. 이와 같은 『일리아스』의 다양한 받아들임은 구체적인 지표로 확인하거나 정확하게 측량할 수는 없지만, 한국 문화의 형성과 변화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그 영향은 받아들임의 양상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 글은 그 영향을 일면을 파악하기 위해 그 ‘받아들임’의 가장 초기의 현장인 식민지 조선으로 간다. 이 때 네 편의 ‘일리아스’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sup>8)</sup> 첫째는 1923년에 춘성(春城) 노자영이 펴낸 『이리앗트니아기』(신생활사)이고, 둘째는 1925년 오천석의 『세계문학결작집』(한성도서)에 실린 「일리아드」 축약 번역이며<sup>9)</sup>, 셋째는 1929년 조선일보에 5회에 걸쳐 ‘심향산인’(心鄉山人)이라는 필명의 필자가 ‘태서명작경개’(泰西名作梗概)라는 코너에 ‘이리앗드’라는 제목으로 전체 줄거리를 소개

8) 흥미로운 현상 가운데 하나는 식민지 조선에서 호메로스의 또 다른 작품 『오뒷세이아』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트로이아 전쟁의 이야기와는 달리, 전쟁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는 오뒷세우스의 모험 이야기는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지는 또 다른 연구의 과제일 수 있다. 특히 오뒷세우스의 귀향 후, 아내를 괴롭힌 구혼자들을 처치하는 장면은 여러 측면에서 『춘향전』의 마지막 장면과 유사한데, 두 작품의 비교와 상관관계의 탐구도 흥미로운 연구 과제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9) 모두 두 권으로 기획되었으나, 첫 번째 책만 출간되었다. 『일리아스』와 함께 실린 작품은 톨스토이의 『안나카레니나』, 입센의 『인형의 집』,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밀턴의 『실낙원』이다. 오천석의 책은 계몽적인 의도가 다분하다. 머리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진보된 이십세기 황무대에서 남과가지 역계를 쫓고 나아가라면은, 적어도 세계각국의 일흔난 글은 낚지 아니치 못할것을 절절히 늦겠습니다. 문명의 정화인 문예를 알지못하고 문명을 안다하는 사람은, 마치, 꽃을 감상함에 그호르는 향기를 맞지 못하고 꽃을 다감상하였노라 하는이와 일반으로 극히 어리석은자이겠습니다.”

한 것이다.<sup>10)</sup> 세 편 모두 1920년대에 나온 것인데, 세계문명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에서 이른 바 ‘세계문학’의 번역에 대한 요구가 절실했던 상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마지막 대상은 1940년과 1941년에 립학수가 두 권으로 나누어 작품 전체를 완역한 『일리아드』(학예사)이다.<sup>12)</sup>

이 글에서는 첫 번째 자료인 노자영의 책을 살펴본다. 그가 한국의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크지 않다. 『백조』 동인이며 『조광』, 『여성』 등의 편집자로서 활동한 출판인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연애소설과 서간집으로 베스트셀러를 터트린 소설가로서 이름이 높고, “1920~30년대에 걸쳐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한 낭만주의 시인”이지만, “그의 시들은 이상하게 파묻혀 있었고, 제대로 알려진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시문학 연구의 대상에서 소외되곤 했다.”<sup>13)</sup> 그의 문학에 관해 논의되는 경우에도 부정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진 경우가 많고, 긍정적인 시각의 논의는 드물다.<sup>14)</sup> “잊힌 이름”에 가까우며, “그의 이름을 기리는 자리는 전무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sup>15)</sup> 더군다나 그의 작품 가운데 『이리엣트니야기』가 국문학자들 사이에서도 서양고전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의의 대상이 된 적은 없는 것 같다. 이 첫 번째 논의가 후속 연구를 자극할 수 있기를 바란다.

10) 1929년 10월 3일(목), 4일(금), 5일(토), 6일(일), 8일(화)에 연재되었다.

11) 김성연(2011), 「1920년대 번역계의 세대교체」, 『반교어문연구』 제31집, p. 35.

12) 립학수는 나중에 월북하여 김일성대학의 어문학부 교수, 학장을 역임했다. 그는 1963년에 평양의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에서 『일리아드』의 개정판을 내놓았으며, 1989년에 다시 평양의 문예출판사에서 세계문학전집의 1번으로 개정판을 출간했다.

13) 최양옥(1999), 『노자영 시 연구』 중 ‘책머리에서’, 국학자료원.

14) 이성교(1972), 「노춘성 연구」, 『현대시학』; 러중동(1994), 「노자영 지음, ‘겨레시’ 연구」, 『배달말』 19호(이상은·최양옥(1999), pp. 261-2에서 재인용).

15) 권보드래(2009), 「춘성, 그 화려하고 쓸쓸한 생애 — 혹은 노자영과 그의 시대」, 노자영, 권보드래 책임편집, 『사랑의 불꽃, 반항(의)』, p. 442.

## 2. 노자영의 『이리엣트이야기』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축약적인 번역의 형식으로나마 그 줄거리를 최초로 소개한 사람은 노자영으로 파악된다. 1923년 신생활사에서 『이리엣트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전체 86쪽 분량으로 출간되었다.<sup>16)</sup> 주목할 점은 제목 위에도 ‘연애소설’이라는, 다소 ‘선정적인’ 문구를 내걸어 독자들의 시선을 끌려고 했다는 것이다.<sup>17)</sup> 실제로 그는 여러 부분에서 『일리아스』를 연애소설의 형식으로 재구성한다. 이런 재구성이 노자영의 독창적인 창작인지, 아니면 그가 이 책을 쓰기 위해 참조한 원본에 의존해서 쓴 모방인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sup>18)</sup> 그의 ‘원본’은 아마도 일본어 책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sup>19)</sup>, 곁들여 영어책을 참조했을 가능성도

- 
- 16) 책 표지의 제목은 ‘이리엣트’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목차에서부터 끝까지 각 쪽의 머리말에는 모두 ‘이리엣드’라고 표기되어 있다. 편집 및 인쇄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43쪽의 머리말에는 ‘이리엣드이야기’라고 ‘이’를 ‘으’로 놓혀 인쇄하는 오류도 보인다. 이 글에서도 장의 제목은 책의 표지 제목대로 ‘이리엣트이야기’라고 썼지만, 본문에서는 ‘이리엣드이야기’라고 표기하겠다.
- 17) 이런 표제는 아래(각주 19번)에 소개되는 다양한 일본어 자료들에서는 볼 수 없는 노자영만의 고유한 특징이다. 松山思水(1913)의 것이 내용적으로 볼 때 노자영이 참조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본어 자료이지만(각주 29 참조), 이 자료에도 노골적으로 ‘연애소설’이라는 표제어나 언급은 없다.
- 18) 노자영의 다른 작품들이 당대 비평가들에 의해 모방과 표절의 시비 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 작품이 순수하게 노자영의 창작이 아니라, 외국어(특히 일본어)로 작성된 ‘일리아스’의 축약을 상당 부분 그대로 번역한 것일 가능성을 매우 높게 해준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일본에서 출간되었던 트로이아 전쟁과 『일리아스』 관련 번역과 소개서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노자영 작품에 대한 표절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조중곤이었다. 그는 노자영을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모기와 다를 바 없다는, 이른 바 ‘문사(蚊士)’라고 비난하기도 했다(「오자영군을 박함」, 『조선일보』, 1926.8.21~25 참조).
- 19) 일본에서는 19세기말부터 『일리아스』가 소개된 것으로 보이는데, 鶴田喜一郎가 『早稲田文學』(와세다문학)에 연재한 「イリアッド」(일리아드)를 비롯해서, 노자영이 참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正宗白鳥 編(1903), 『イリアッド物語』(일리아드 이야기), 富山房; 赤司囁花・石田春風 編(1904), 『楯の響 — イ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이 책에는 그런 정보를 제공할 법한 서문도 없이 바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0)</sup> 만약 노자영이 외국어 원본을 놓고 거의 그대로 번역하여 베낀 것이라면, 그의 『일리아스』 읽기의 중요성은 반감할 수 있으며, 단지 어떤 원본을 선택하는가와 관련된 그의 취향과 의도만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가 참조했을 법한 일본어 책자 몇 가지가 눈에 띄긴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노자영의 번역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없어 보인다. 게다가 이 글에서 중요한 것은 노자영의 책에 그의 창작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책이 『일리아스』를 식민지 조선 1920년대에 ‘연애소설’로 소개했고, 어떤 부분이 연애소설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노자영의 창작 내지 각색, 번역이 어떤 시대적 분위기에서 조선의 독자들에게 소비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자영의 취향과 의도를 초점으로 삼고, 『이리엣트니야기』에 대한 그의 저작권을 인정하며 논의를 전개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현상은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출판계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잘 보여준다. 1919년 삼일운동 이후, 출판에 대해 강화된 정치적 검열을

---

リアッド梗概』(방패 소리 — 일리아드 경개), 金港堂; 松山思水(1913), 『호머-물어』(호머 이야기), 實業之日本社; 富山房 編輯部 編(1913), 『世界文學物語』(세계문학 이야기) 중 正宗白鳥 編, 『イリアッド物語』(일리아드 이야기), 富山房, pp. 247-380; 延川直臣 編(1914), 『希臘羅馬神話』(희랍로마신화) 중 『イリアッド物語』(일리아드 이야기), 嵩山房, pp. 272-290; 國民文庫刊行會(1915), 『イリアード』(일리아드), 國民文庫刊行會, pp. 1-761(본문 전체의 번역은 馬場孤蝶가 담당); 小松武治 編(1923), 『호머-물어』(호머 이야기) 중 『イリアッド』(일리아드), 大鏡閣, pp. 1-204.

20) 반면 오천석은 『세계문학결작집』(1925, 한성도서)의 머리말에서 “본서는 할수있는데로 그세계적결작의 아름다운맛을 그릇되히 하지아니하기를 도모하여, 대개는 일본역 삼사가지와 및 영역 한가지로써, 서로 비최고 살렸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가 참조한 일본역과 영역본이 무엇인지, 그가 완벽본을 참조하여 요약한 것인지, 아니면 일본어나 영어로 된 요약본을 참조하여 재구성하거나 그대로 번역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적절하게 피하면서도 대중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출판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때부터 상업적 출판의 근대적 특징인 3S, 즉 선정성(sensation), 감상성(sentimentalism), 성(sex)의 요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연애’가 그 현상 전체를 대변하는 키워드였다. ‘연애’는 1920년대의 시대적 상황을 상징하는 단어였으며, 교육열과 문화열이 팽창해 오르던 무렵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다.<sup>21)</sup> ‘연애’는 식민지 조선 1920년 문화계, 출판계가 탄생시켰고 활발하게 유통시킨 시대의 산물이었다. 노자영은 1922년(혹은 1923년)에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사랑의 불꽃』 출간하며 대중의 욕구를 적절하게 상업적으로 반영하였다.<sup>22)</sup> 가히 그는 1920년대 “최고의 상품 가치를 누리고 있었”으며, “‘문학’을 상징하는 아이콘이자 ‘연애’에의 열망을 상징하는 부호이기도 했다.”<sup>23)</sup> 그 직후에 출간된 것으로 보이는 『이리엣트니야기』도 그런 그의 특징과 재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sup>24)</sup>

물론 ‘연애’라는 표제어는 단순한 출판의 상업적 특징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연애’라는 말이 ‘중세 봉건적 질서’에서 벗어난 조선이 근대로 가는 길목에서 생겨나서 남녀 사이의 관계와 사회적 통념을 뒤흔 들었기 때문이다. 결혼은 가족의 문제에서 개인의 문제로 옮겨져 가고

21) 권보드래(2003), 『연애의 시대 — 1920년대 초반의 문화와 유행』, 현실문화연구, p. 16.

22) 이태숙(2008), 「근대출판과 베스트셀러 — 노자영의 연애서간을 중심으로」, 『안중 인문학연구』 제24집, pp. 76-77. 노자영은 『사랑의 불꽃』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 수익금으로 청조사라는 출판사를 직접 설립하여 일련의 베스트셀러를 내놓았다. 그로 인해 1920년대 조선출판계는 ‘연애서간집’을 출판하는 것이 큰 유행이 되었다.

23) 권보드래(2009), p. 443.

24) 노자영은 주로 창작을 통해, 물론 모방과 표절의 시비가 그를 내내 괴롭혔지만,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명성을 높였다. 그는 또한 세계문학작품의 번역가로서도 활발히 활동했는데, 『이리엣트니야기』도 그 중 하나다. 다른 번역은 공역자가 있지만 이 작품만은 그의 단독 번역인 점이 주목할 만하다(김성연, 위엣 글, pp. 53-54).

있었고, 배우자를 부모가 정해주는 것을 거부하는 움직임은 새로운 현상이었다. 연애를 전면에 내세우며 기존의 결혼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근대적 주체’라는 상투어와도 일맥상통하며, “개인의 욕망”과 “근대적 감각”으로 해석될 수 있던 개념이었다.<sup>25)</sup> “1920년대에 유행한 ‘자유연애론’은 분명한 의지로 선택한 것만이 진정한 자기 삶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배운 신남성은 “조흔한 아내쯤이야 무시해도” 좋다는 식으로 행동했고, ‘사랑’(love)이 “새로운 세대에게는 자유를 약속하는 절대적 권위였기에”<sup>26)</sup> 그 번역어로 탄생한 ‘연애’는 시대가 갈망한 새로운 가치관의 기치이기도 했다. 따라서 『일리아스』를 연애소설로 각색하여 소개한 것은 1920년대라는 시대정신의 산물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호메로스의 『일리아스』가 노자영이 읽은 대로 연애소설 장르에 속하는 것일까? 물론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트로이아 전쟁이 트로이아의 왕자 파리스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 사이에서 타오른 불꽃과 같이 격정적인 사랑에서 비롯되었고, 아내의 배신과 파리스의 불륜을 응징하겠다는 메넬라오스의 분노와 복수심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트로이아 전쟁 전체 이야기를 연애소설의 구도로 구성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sup>27)</sup>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두고 두 남자가 결투를 벌이는 구도이고, 이것이 여인을 두고 벌이는 개인적 맞대결의 수준을 넘어 도시 대 도시, 국가 대 국가의 대결로, 나아가 두 남자의 도시를 중심으로 구

25) 김현주(2005), 「한국 대중 소설의 전개와 ‘독자’의 문제 — 연애라는 문화적 코드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13, pp. 23-59.

26) 권보드래(2003), pp. 67-70, p. 77.

27) ‘트로이아 전쟁 이야기’를 남녀 간의 사랑과 연애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이야기로 지어낸 전통은 서구에서도 다양하게 포착된다. 이에 관해서는 Haight, E. H. (1947), “The Tale of Troy: An Early Romantic Approach”, *The Classical Journal*, 42 (5), pp. 261-269; Roisman, H. M. (2008), “Helen and the Power of Erotic Love: From Homeric Contemplation to Hollywood Fantasy”, *College Literature*, 35 (4), pp. 127-150을 참조.

성된 대규모 연합군의 전쟁으로 비화한 다소 낭만주의적인 모양새이기 때문이다.<sup>28)</sup>

그러나 무사(mousa)여신에게 ‘아킬레우스의 파괴적인 진노를 노래하라’는 시인의 명령으로 시작되는 『일리아스』의 핵심 주인공은 분명 아킬레우스이며, 그의 파괴적인 진노가 고대 그리스의 영웅주의적 가치관,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안고 불멸의 명성을 지향하는 전사들의 명예지향적 가치관의 틀에서 부각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 전쟁의 원인인 사랑과 연애 감정,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남자들 사이의 분노와 경쟁, 결투는 우연적이거나 부수적인 요소로 취급되는 것이 보통이다. 헬레네를 트로이아로 데려온 파리스는 남자답지 못한 남자로 그려지고 전사의 축에 제대로 끼지 못하며, 따라서 그의 연애담이 『일리아스』를 움직이는 원동력이거나 핵심 축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일리아스』를 연애소설로 읽는 노자영의 시각이나 태도는 원작자의 의도에서는 크게 벗어난 것이며, 노자영의 독법은 연애를 통해 자유와 주체성을 갈망하며, 연애를 각성적 진통제쯤으로 소비하였던 식민지 조선 1920년대라는 시대적 산물인 셈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자영의 글에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연애소설로 만드는 요소들을 골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자.

28) 물론 결투와 전쟁은 낭만주의적 연애소설의 주제만은 아니며, 다양한 가치를 내걸고 주인공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결투와 투쟁은 모험, 사랑과 함께 서구문학사의 중요한 테마였다. 이에 관해서는 이정권(2014), 「유럽 및 독일 문화 속에 내재된 본질로서 결투 — 『오이디푸스 왕』부터 헐리우드 서부극까지」, 『독일어문학』 제64호, pp. 241-266를 참조. 트로이아 전쟁이 연애소설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일리아스』에서 아킬레우스로부터 비롯된 결투는 노자영이 보는 것과는 달리 남녀 사이의 사랑보다는 명예나 우정에 훨씬 더 큰 방점이 찍힌다.

## 2.1. 황금사과와 파리스의 선택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자영의 이야기가 트로이아 전쟁의 발단으로 알려져 있는 ‘황금사과 전설’과 ‘파리스와 헬레네의 사랑’에서 시작되고, 트로이아 전쟁이 종료된 이후 메넬라오스와 헬레네가 재회하여 귀향해서 잘 살았다는 말로 끝난다는 것이다.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이야기들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는 생략된 것인데, 노자영이 ‘의도적으로’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sup>29)</sup> 이로써 노자영의 ‘일리아스 이야기’ 전체는 다른 남자에게 아내를 빼앗긴 남편이 아내를 되찾아 결국 행복하게 산다는 식의 이야기의 구도를 갖게 되며, 『일리아스』의 핵심 주제인 아킬레우스의 분노와 슬픔, 헥토르의 장렬한 죽음은 헬레네를 둘러싼 사랑싸움을 이야기하기 위한 보조적인 요소로 전락한다. 이런 점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도입부인데, 노자영의 『이리엣드이야기』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는 달리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넷적 쓰리시아나라에는, 에리쓰라부르는싸흠의女神이잇었다. 페류-쓰라하는男神과세티쓰라는女神과의사이에는, 꽃다운結婚의約束이이루어서, 오래지아니하야將次큰잔채를베플게되앗다.”(1)<sup>30)</sup>

29) 시작 부분의 유사성을 볼 때, 노자영은 앞서 소개한 일본어판 자료들(각주 18 참조) 가운데 松山思水(1913)의 것이 참조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12개로 구성된 장절과 세부적인 문단 나눔, 서술, 대화 등에서 직접 번역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노자영은 일본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축약하거나 가필했으며 몇몇 인명은 사쓰야마 시스이의 본문 표기를 따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자영의 책은 시스이의 책을 기본으로 삼고 다른 여러 자료들을 참조한 후, 거기에 그만의 창작 요소들이 추가되어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30) “쓰리시아”는 그리스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 이후로는 “그리샤”라고 표기된다. 한편 “에리쓰”는 불화의 여신 에리스를, “페류-쓰”는 펠레우스를, “세티쓰”는 테티스를 가리킨다. 테티스가 여신인 것은 맞지만, 아이아코스과 여신 엔데이스 사이에서 태어난 펠리아스는 남신이 아니라 반신반인의 영웅이다. 노자영은 이점에서 실수를 범했는데, 그가 참조한 자료의 실수인지, 아니면 노자영 자신의 실수인지는 분명

그런데 이 결혼식에 에리스가 혼자만 초대받지 못한 것을 알자 크게 노하였고, 원수를 갚으려 궁리 끝에 계교를 꾸며 “『가장아름다운자에게』라고 삭인 黃金의林檎한箇를그잔채의마당에더졌다.”(1)<sup>31)</sup> 이를 탐하여 세 명의 여신이 덤벼드는데, 즉 “하나은기품스러운헤라, 하나은智慧스러운아테네, 또하나은사랑스러운비나쓰”<sup>32)</sup>였다. 이와 같은 노자영의 시작은 호메로스의 원작과는 완전히 다르다. 호메로스는 무사(mousa) 여신에게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파괴적인 진노”를 노래해 달라는 명령문으로 시작하며, 그 시간적인 배경은 트로이아 전쟁이 일어난 지 10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노자영은 호메로스가 시작하는 장면에서 수십 년 이상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와 같이 황금사과 이야기로 시작하는 노자영의 의도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는 독자의 이해를 도우려는 의도다. 노자영의 독자들은 아마도 『일리아스』와 트로이아 전쟁 이야기를 잘 몰랐을 것이다. 그들에게 ‘일리아스’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전하려면 그 배경인 트로이아 전쟁의 전말을 요령 있게 전해야 한다. 그러려면 전쟁의 최초 원인이 되었던 ‘황금사과와 파리스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그야말로 ‘일리아스’를 연애소설로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름다움을 놓고 벌이는 세 여신의 경쟁과 그에 따른 파리스와 헬레네의 사랑 이야

---

명하지 않다. 어쨌든 펠레우스와 테티스 사이에서 아킬레우스는 영웅으로 태어난다. 노자영의 글에서 고유명사에 강조점이 찍혀있는데, 인용문에서 이와 같은 표기법을 따랐다. 다른 인용의 경우에도 최대한 원문의 표기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인용문 뒤에 붙인 괄호 속 번호는 노자영 작품의 쪽수이다.

- 31) 노자영의 시 가운데에는 1922년에 『신생활』에 발표한 「黃金의林檎」가 있다. 저녁 노을이 사과에 물들어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그것을 잠은 ‘당신’을 “아!! 天使의 딸이여? 美의 神이여”라고 부르는 구절은 지금 아프로디테가 황금사과를 차지하게 될 이 장면을 예고하는 듯하다. 시의 전문은 최양옥(1999), pp. 49-50을 참조.
- 32) “비나쓰”는 ‘베누스’(Venus)인데, 로마신화의 이름을 가져온 것이다. 이 여신은 호메로스 서사시와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Aphroditē)로 나타나며, 베누스라고 쓰인 경우는 없다. 한편, “아테네”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를 가리킨다.

기를 꺼내는 것이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노자영의 ‘일리아스 이야기’는 세 여신이 황금사과를 놓고 아름다움의 경쟁을 벌이는 데서 시작한다. 세 여신은 황금사과를 얻기 위해 정정당당하게 미모로 대결을 벌이기보다는 심판관인 파리스를 매수하려고 한다. 먼저 헤라는 “限量업는힘”을 주고 동에서 서까지 모든 나라의 왕으로 삼겠다는 것을 약속한다. 이에 질세라, 아테나는 파리스가 원하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神들과갓치智慧스럽게” 만들어주고 그에게 案內者가 되어주겠다고 다짐한다. 반면 아프로디테는 사랑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이렇게 말한다.

힘은어대다쓰며, 智慧는무슨所用이잇서요? 아아름다운파리스! 나는당신에게사랑을주리다. 힘은아모리긋셀지라도, 즐거움을나올수는 업서요. 智慧가아모리만홀지라도달콤한사랑의맛을볼수는업는것인 것이야요, 당신의안해로서는, 이世上사람들가운데에第一아름다운女子를擇하여주리다. 어서그林檎을나에게주서요. 아름다운파리스!(3)

이 장면에서 아프로디테는 ‘사랑’을 지상의 가치로 부각하는 연애지상주의자로 등장한다. 이런 아프로디테는 노자영의 ‘창작’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한 것을 깨달았으며, 더욱이 ‘브라우닝’이 말한 ”러브, 이즈, 베스트“(love is best)라는 구절이 무엇보다도 진실인 것을 깨달았”던 『반향』의 혜자가<sup>33)</sup> 그리스 여신으로 변신해서 나타나 말하는 듯하다. 넓게는 “필요한 것은 오로지 사랑, 사랑이었”던 시절<sup>34)</sup>,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등의 시대적 경향”<sup>35)</sup>이 생겨났고,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헤어진다면 죽는 것보다 못

33) 노자영(1923), 『반향』(권보드래 책임편집(2009), 『사랑의 불꽃, 반향(외)』, 범우사, pp. 31-32에서 인용).

34) 권보드래(2003), p. 77.

35) 박월탄(1923), 「문단의 1년을 추억하며」, 『개벽』 31호, pp. 1-2; 권보드래(2003),

하다며 “사랑에서 나서 사랑하다가 사랑으로 죽는”<sup>36)</sup> 삶의 모델이 생겨났던 식민지 조선 1920년대의 산물이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노자영은 가히 ‘사랑지상주의’를 주창한 한국 최초의 시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sup>37)</sup> 물론 사랑을 지고의 가치로 삼는 태도는 그리스의 서정시가 태어난 상고기의 사포의 것이기도 하다.<sup>38)</sup> 하지만 노자영이 사포를 몰랐다면, 그는 1920년 식민지 조선의 새로운 분위기를 아프로디테에게 입힌 것이다.

파리스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주겠다는 말을 들으면서 아프로디테에게 매혹되고, 결국 황금사과를 그녀에게 건네준다. 다른 두 여신은 파리스의 판단에 분개하며, 그 노여움을 이야기 끝까지 가져간다. 예컨대, 파리스가 메넬라오스와 맞대결을 벌이다가 죽을 뻔했을 때도 아프로디테가 구해주자, 이에 대해 두 여신은 품고 있던 앙심을 격렬한 분노를 표출한다.

黃金의林檎을다토든뒤로브터, 파리스를미워하는마음이한時도가  
 숨을져나지아니하는女神헤라와아테네는, 이제파리스와메네로-쓰와  
 의決鬪가將次숫흘마치고, 파리스의몸이다시平安한곳으로도라가려  
 함을보고는, 참아그대로잇슬수가업섯다.(33)<sup>39)</sup>

p. 93에서 재인용.

- 36) 牧星(1921), 「(사회풍자) 은파리」, 『개벽』 17호, p. 11, p. 75; 권보드래(2003), p. 93에서 재인용.
- 37) 서상영은 노자영의 첫 번째 시집인 『처녀의 화환』(1924, 청조사)을 분석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서상영(2013), 「노훈성 연구 — 『처녀의 화환』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37호, pp. 253-280), ‘사랑지상주의’는 이미 『이리엣트 이야기』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 38) 예컨대 사포의 단편 16번은 사랑의 가치를 호메로스적 전사적 가치에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어떤 이는 기병대라고, 어떤 이는 보병대라고 / 또 어떤 이는 함대라고 말한다네, 검은 대지 위에서 /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말하리라, 각자가 /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 서정시에서 사포는 일견 ‘사랑지상주의’를 노래하고 있는 것 같다.

호메로스의 작품에는 없는 ‘황금사과 이야기와 파리스의 선택’은 호메로스 후대에 지어진 이야기, 특히 기원전 7세기 스타시노스에 의해 지어진 『퀴프리아』에서 비로소 자세하게 소개된다. 특히 바로 위에 인용된 문장(33)과 유사하게 헤라의 감정을 표현한 구절은 기원전 1세기에 활동한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 『아이네이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자영이 참조했을 법한 외국의 자료들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그 작품 이후에 창작되어 트로이아 전쟁 이야기에 덧붙여진 것들이라고 하겠다. 노자영은 이를 맨 처음에 배치하여 전면부에 부각시킴으로써 ‘일리아스 이야기’에 연애소설의 구도를 입힌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노자영은 식민지 조선의 1920년에 태어난 ‘연애’의 감정을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의 뼈대에 입혀 ‘연애소설, 이리아트니야기’를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다.

아프로디테에게 황금사과를 건네준 파리스는 그 여신의 인도를 받아 스파르타로 건너가 메넬라오스의 왕의 아내 헬레네를 납치한다. 헬레네가 바로 아프로디테가 약속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며 ‘달콤한 사랑의 맛’을 함께 즐길 여인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아내를 빼앗긴 메넬라오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결국 그리스 군대를 몰고 트로이아를 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남의 아내를 빼앗은 파리스도, 아내를 되찾겠다고 전쟁을 일으킨 메넬라오스도, 남편과 조국과 부모와 자식을 모두 버리고 떠난 헬레네도 사랑, 즉 연애를 지상의 가치로 알고 목숨마저 버릴 줄 알았던 1920년 식민지 조

39) 나중(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는 제2권의 전반부)에 아가멤논이 ‘이제 트로이아를 함락할 시점’임을 예시하는 제우스의 거짓 꿈에 속은 후에 일반 군사들에게 귀향을 함이 어떠냐고 떠보자, 전군이 곧바로 전쟁을 포기하고 배로 몰려가는 장면이 나온다. 이를 보고 놀란 헤라가 아테나에게 그리스 군의 퇴각을 막으라고 명하는데, 이 대목에서도 노자영은 ‘파리스로부터 당한 치욕’을 상기시킨다. “저 아름다운헤레나를트로이로부터도로찾지못하고, 또한파리스를뺏추지도못한채로, 그냥두어버리는것은우리의恥辱이아닐까요?”(19).



선의 연애소설의 치열한 주인공들의 원형처럼 보인다. 아니, 노자영은 그렇게 트로이아 전쟁의 주인공들을 각색하고 분장했다.

## 2.2.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의 충돌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장식하는 첫 장면은 아가멤논을 찾아온 아폴론의 사제 크리세스가 아가멤논에게 포로로 잡힌 딸 크리세이스를 찾으러 왔다가 거절당하고 쫓겨나는 사건이다. 이로 인해 그리스 연합군의 진영에는 아폴론이 쏘아댄 화살에 역병이 든 수많은 군사들이 죽어나간다. 이를 해결하려고 그리스 진영에서는 회의가 열리고, 그 자리에서 예언자 칼카스는 아가멤논에게 크리세이스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가멤논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이 장면에서 아킬레우스가 나서면서 총사령관 아가멤논과 충돌한다. 아가멤논이 자신의 전리품인 크리세이스를 돌려주는 대신, 아킬레우스의 전리품인 브리세이스를 빼앗겠다고 협박하며 선포한 것이다. 당연히 아킬레우스는 분노하며 아가멤논과 결사적인 논쟁을 벌인다. 『일리아스』를 촉발한 두 사람의 충돌은 크리세이스와 브리세이스라는, 각각 두 전사 소유의 여자노예를 내어주고 빼앗는 사건 때문에 촉발되는 것으로 보이며, 언뜻 여자들에 대한 두 남성의 애정과 호감이 표현되기는 하지만, 호메로스의 원작에서 그것은 이른바 연애감정과는 거리가 멀다. 두 여인은 모두 전쟁의 전리품으로서 전사에게 주어지는 ‘명예의 상’(geras)로 표현되며<sup>40</sup>, 두 전사의 논쟁은 결국 명예를 지키려는 영웅적 가치관의 충돌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자영은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논의 갈등 장면을 두 개의 장에 할애하여 비교적 비중 있게 자세하게 기술하면서, 야릇한 연애소설의 분위기를 덧입힌다. 아가멤논이 크리세이스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예

40) ‘명예의 상’(geras)에 관해서는 김현(1997), 「아킬레우스의 분노와 제우스의 뜻」, 『서양고전학연구』 제11집, pp. 56-59를 참조.

언자 칼카스에게 아가멤논이 면박을 주면서 거절하는 장면에서도 노자영의 아가멤논은 이렇게 말한다. “칼카스! 너는그싸위못된豫言박계할줄 모르는홀능한豫言者다. 그러나나는決코, 나의안해보다도더貴重여운크리 사이즈를돌녀보낼수없다.”(9) 이런 말은 호메로스의 아가멤논이 말한 것과 비슷하다. “그래 난 그 아이가 클뤼타임네스트라보다, 쪽을 올린 내 아내보다 더 맘이 간다, 그 애는 조금도 못할 게 없으니까, 몸매로도 용모로도 결코, 생각을 하거나 일하는 데도 못할 게 없으니까.”(1.113-5) 노자영은 바로 이런 구절에 근거하여 ‘일리아스 이야기’가 연애소설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으며, 이런 연애소설 분위기를 이야기 전체로 확장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연애소설의 색깔을 ‘일리아스 이야기’에 덧입히는 작업은 아킬레우스의 명예의 상인 브리세이스의 대사에서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아가멤논이 그리스군의 전멸을 막기 위해 크리세이스를 돌려주겠다고 선언한 뒤, 자신을 압박하는 데에 앞장섰던 아킬레우스에게서 그의 명예의 상인 브리세이스를 강탈한다. 노자영은 아킬레우스와 크리세이스의 이별 장면에서 두 사람을 여자를 잃는 남자와 남자를 떠나야만 하는 가련한 여자의 모습으로 그려냄으로써 호메로스의 원작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연애소설의 분위기를 확실하게 만든다. 호메로스의 브리세이스는 아무 말 없이 끌려가지만<sup>41)</sup>, 노자영의 브리세이스(뿌리씨-즈)는 자신의 애뜻한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아름다운뿌리씨-즈는, 아킬레스를떠나아가멤논에게로가기를실혀하였다. 그러나엇지할수도업는줄깨다르매, 그는눈물을뿌리고아킬레씨에게서러운情을말하였다, 『이제나는당신을떠나가요. 그러나나는당신을잊지아니하리다. 다만大王의명이니엇지할수도업는것이야요.』(14)

41) 원작에는 “여인도 마지못해 그들을 따라갔다.”(1.348)는 표현만 나온다.

노자영의 작품 속에서는 브리세이스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는 아킬레우스의 반응도 호메로스 원작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호메로스의 아킬레우스는 아가멤논에게 명예의 상을 빼앗기며 모욕감을 느끼고, 불멸의 명성을 잃게 될 것에 슬퍼하고 분노하며 초조해한다. 그러나 노자영의 아킬레우스는 애인의 상실에서 그 모든 감정들을 더욱 더 절절하게 느끼는 것 같다.

아킬레우스는 오직 물쓰럼이 그 뒤 스모양을 바라보고, 말엽시잇섯슬뿐이 었다. 마춤내는 다만 호를로, 灰色빛바다스가에웃둑히서서, 소래를놓혀얹호게울었다. 그는 쓸어올으는마음에불붓는눈으로, 茫茫한바다우을바라보면서, 두손을놓히하날로들고, 銀발(足)가진어머니, 테-치쓰를볼뵈다.(14)42

이와 같이 아킬레우스와 브리세이스의 관계는 전사와 그에게 주어지는 명예의 상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남녀의 관계로 낭만적으로 그려지며, 아킬레우스는 애인을 잃은 비련의 남자 주인공으로 그려진다. 저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싶다. 노자영은 호메로스의 서사에 공감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노자영의 눈에 호메로스는 남녀 사이의 애뜻한 사랑과 연애감정을 무시한 채, 아킬레우스와 브리세이스를 거친 전사와 전리품의 관계로 그려냈고, 그렇게 해서 소설의 분위기를 남성적인 영웅서사시로 만든 재미없는 작가인 셈이다. 노자영은 그런 점이 안타까운 양, 두 전사의 갈등을 ‘여자문제’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헬레네와 파리스의 불장난과도 같은 사랑에서 비롯된 전쟁의 틀 안에서 부각하며, ‘일리아스’ 전체 이야기를 연애소설처럼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 그의 이야기는 전사들의 격렬한 전투와 영웅들의 빛나는 활약, 자존심의 대결

42) 원작의 아킬레우스 반응 “그러자 아킬레우스는 눈물을 흘리며 전우들 곁을 떠났다. 그는 잿빛 바다의 기슭에 홀로 앉아 포도주빛 바다를 바라보며 두 손을 들어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열심히 기도했다.”(1.349-350).

등 영웅서사시의 중요한 요소들도 담고 있고, 호메로스의 원작에서의 전투 장면을 박진감 있게 살려내면서 무협소설의 느낌도 잃지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무협’의 요소들을 연애소설의 틀 안에서 맛깔스럽게 요리해낸 것이다.

### 2.3. 파리스와 메넬라오스의 대결

『일리아스』에 그려진 첫 전투는 트로이아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회적이면서도 매우 인상적으로 보여준다. 바로 그것은 전쟁의 원인이었던 아름다운 헬레네를 두고 옛 남편인 메넬라오스와 현재의 남편인 파리스가 맞대결을 벌이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그리스군과 트로이아군이 서로를 향해 전진하면서 큰 전투가 벌어지려는 순간, 트로이아 군의 선봉으로 파리스가 등장하고, 곧이어 메넬라오스가 그에 대적하기 위해 나선다. 둘이 트로이아 평원에서 맞서고 있는 순간, 트로이아의 성벽 위로 헬레네가 나타나 그들을 바라본다. 황금사과 이야기와 파리스의 심판, 헬레네의 납치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트로이아 전쟁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호메로스가 그려낸 이 장면이 갖는 의미와 극도의 긴장감을 바로 느낄 수 있다.

이 장면을 노자영이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를 하나씩 짚어보면, 원작과의 흥미로운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파리스가 등장하는 장면을 노자영은 이렇게 서술한다.

마침내트로이와그리샤의두軍士는, 서로對하고발을멈췄다. 트로이의軍中으로부터는, 神인가疑心할만큼嚴肅하고아름다운將帥하나이나타났다. 그것은, 저메네로-쓰로브터가장사랑하는안해를빼야사서, 이싸움의첫머리를지어낸파리스이다.”(25)

전쟁의 원인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파리스를 보고 기뻐하며 메넬라오스가 그리스 군의 선봉으로 나서자, 그 모습을 본 파리스는 갑자기 겁을 먹고 물러나는데, 노자영의 표현에 따르면, 파리스는 “이前날의不義를생각하고, 그러튼豪氣도어느덧죽어져버렸다.”고 한다.(26) “이前날”은 물론 전투 하루 전날이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기 전의 시간을 가리키며, “不義”는 메넬라오스로부터 그의 아내 헬레네를 유혹하여 트로이아로 데려온 사건을 말한다. 겁에 질려 물러선 파리스를 보자, 화가 난 헥토르가 그를 비난한다. “兄님! 얼굴은매우홀농하지마는, 나는당신의것해서잇기도붓그럽게생각하오.”(26)<sup>43)</sup> 이 장면에서 노자영의 헥토르는 파리스를 겁쟁이라고 비난하는 동시에, 호메로스의 그와는 달리 메넬라오스까지도 비아냥거린다. “저아름다운안해를빼앗긴者는果然엇더한 못난사람이관대당신과갓흔卑怯장이에게안해를일헛슬가?그의얼굴을보고십다.”(26) 이로써 두 사람의 대결을 아내를 빼앗긴 못난이와 그 못난이를 겁내서 피하는 비겁장의 대결로 비하하면서 파리스의 심기를 건드리고 맞대결을 부추긴다.

마침내 두 군대의 한 가운데로 전쟁의 원인이었던 두 남자 메넬라오스와 파리스가 맞대결을 벌이기 위해 나서자, 이 모습을 보려고 트로이아의 성벽 위로 헬레네가 나타난다. 트로이아의 원로들은 그녀의 미모에 크게 놀라면서도 헬레네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샤사람들과트로이사람들이, 서로自己의목숨을빚쳐가면서얹흔싸흙을긋치지아니하는것도, 저아름다운게집의까닭이라하면, 그러케놀날일도아니다, 그러나, 헤레네가이곳에잇서서우리에게禍를끼치고, 그뿐아니라나가서, 우리의子孫에게까지멀니禍根을물니기보다는, 차라리그리샤의배에올나서넛故郷으로도라가는것이, 모든사람을爲하야일

43) 이 대목에서 노자영은 큰 실수를 범한다. 파리스는 헥토르의 형이 아니라 아우이기 때문이다.

마나福스러운일이랴!(29)<sup>44)</sup>

이와 같은 심정은 파리스가 메넬라오스의 맞대결에서 패하고 메넬레 아오스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에 아프로디테의 도움으로 겨우 싸움터를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을 때에 트로이아 사람들의 심정을 그려내는 문장에서 더욱 더 분명해진다. “트로이사람들도처음부터, 가장아름다운男子파리스를미워하였스매, 그가몸을傷하고逃亡한것을, 차라리마음속에깃버하얏스리라.”(p. 32)

메넬라오스와의 맞대결에서 죽을 뻔한 파리스가 아프로디테의 도움으로 트로이아 성으로 돌아와 헬레네와 지내는데, 그때 이후 벌어진 격렬한 전투에서 잠시 돌아온 헥토르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장면에서 노자영은 파리스와 헬레네의 연애관계를 부각시킨다.

썬빛머니누러케빛나는파리쓰는, 女神비나쓰의팔에안기어戰場으로  
부터逃亡한뒤로, 날마다이宮殿안에서아름다운헤레나를다리고, 달콤  
한歡樂에醉하야잇섯다.<sup>45)</sup> 헥토르가只今이리로들어갓슬췌에, 파리쓰  
는헤레나로더브러, 번씩이는방패와갑옷과곰게裝飾한활을, 노리개감  
갖치어루만지고잇섯다.(43)

---

44) 반면 호메로스는 트로이아의 원로들이 파리스의 심정을 이해하고 두둔하는 것 같은 태도로 그려낸다. “비난할 게 없어요. 트로이에 인들과 멋진 경갑을 찬 아카이아인들이 / 저와 같은 여인을 두고 지나긴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다 해도 말이오. / 놀랍소. 그녀는 눈으로 보기에 죽음을 모르는 여신을 꼭 닮았구려. / 하지만 아무리 그녀가 그렇다 하더라도, 함신들에 태워 보내야 해요. / 우리와 후손들에게 나중이라도 재앙이 남게 되지는 않도록 말이오.”(3.156-160).

45) 호메로스의 원작에는 전쟁터에서 빠져나온 파리스와 헬레네가 “달콤한 환락”을 즐기는 것은 “날마다”가 아니다. 길어나 전투 당일 몇 시간에 지나지 않고, 잠시 후에 헥토르가 그의 침실로 들어와 꾸짖으며 복귀할 것을 명령한다.

원작에는 이 부분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그가 가서 보니 파리스는 침실에서 방패며 흉갑 같은 아름다운 무장을 손질하며 구부러진 활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아르고스의 헬레네는 시녀들 사이에 앉아 하녀들에게 훌륭한 수예 일을 시키고 있었다.”(3.321-4) 물론 이 부분에서 노자영이 연애소설의 분위기를 부각시켰다고 말하긴 어렵다. 호메로스의 원작 자체가 이 부분을, 다소 기괴하긴 하나 뜨거운 사랑의 유희 장면으로 그려내면서 연애소설에 가까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기괴한 이유는 ‘영웅서사시’가 역력한 다른 부분들과 버성기게 이 부분만이 유독 ‘연애소설’스럽기 때문이다. 원문을 보자. 전쟁터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빠져나온 파리스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생사의 고비에서 전투에 피땀을 흘리고 있는데, 헬레네가 있는 침실로 돌아와 그녀와 성적 환락에 빠지기 직전이다.

“이리로 오시오. 이제 애정으로 우리 즐겁시다, 잠자리에 누워서.  
지금까지 사랑의 욕망이 이렇듯이 내 폐부를 뒤덮었던 적은 없었으니까.  
그때도 안 그랬소, 내가 처음에 사랑스러운 라케다이몬으로부터 당신을  
빼돌려서 내은 다음에, 바다를 가르느 함선들을 타고 항해를 하다가,  
크라나에 섬에 들어가 잠자리에서 애정으로 서로 몸을 섞었던 때에도.  
그만큼 당신을 지금 내가 열망하며, 달콤한 욕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소.”  
그리고 그가 앞장섰다, 침대 쪽으로 가면서. 함께 따라갔다, 그의 아내도.  
두 사람은 이렇게, 장식용 구멍이 승승 뚫린 침대 위에 함께 누웠건만  
(3.441-8)

호메로스와 노자영의 차이점은 이 부분을 전체 이야기에서 낮선 것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이 분위기를 전체 이야기로 퍼지게 하여 친숙한 것으로 서술했느냐는 것이다. 노자영은 이 부분을 전체에서 낮선 부분으로 고립시키는 호메로스와는 달리, 이야기 전체로 확장시켜 연애소설을 완성하는 기폭제로 삼은 것이다.

## 2.4. 헥토르와 안드로마케의 이별

헬레네의 침실에서 환락에 젖어 있던 파리스를 꾸짖어 전쟁터로 복귀시킨 헥토르는 성을 떠나려고 한다. 잠시 아내 안드로마케와 아들 아스튀아낙스를 만나려고 했으나, 그들을 찾을 수가 없자 그는 미련 없이 전장으로 향하였다. 헥토르는 사사로운 감정을 뒤로 한 채,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의연히 돌아서는 그런 남자였다. 그러나 노자영은 그런 헥토르를 아내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남자로 탈바꿈했다. 아내를 찾는 헥토르에게 시종 하나가 다가와서, 안드로마케가 성탑 위에서 울고 있다고 알려주자, 헥토르는 그녀를 찾는다.

이와갓치말하면서종은, 멀리보이는城쪽을손으로도가라쳤다. 헥토르는이말을듯고, 밧비발을도리켰다. 그리하야씨는가슴을强혀누르면서, 사랑하는그의안해안드로마키-를向하고, 멀리故郷을써낫든사람이오랜歲月을지난뒤에다시그의넛집을차자도라와서갓가히이르릿슬새와갓치, 그는발을機械와갓치놀니면서거렀다. 멀리서그의모양을바라보고잇든아름다운안드로마키-는, 밧친듯이그에게로뛰여들었다.  
(45-6)

호메로스의 원작에 따르면, 안드로마케는 헥토르에게 전쟁터로 가지 말라고, 당신이 죽으면 나는 과부가 되고 아이는 고아가 된다고 간절하게 만류하지만, 헥토르는 나가서 싸워야 한다고 아내에게 대답한다. 둘 사이에 깊은 감정의 교감은 있지만, 신체적 접촉은 없다. 그러나 노자영은 두 사람의 만남에서 다소 자극적인 신체적 접촉을 그려낸다. “이와갓치말하고안드로마키-는, 소리를노아슬피울었다. 헥토르도눅김이북바쳐서, 사랑하는안해의허리를쓸어안고, 두줄눈물을샘솟듯휘뿌렸다.”(45)

헥토르의 회한도 원작의 의젓하고 단정한 영웅주의적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激戰의한가온대뛰어들어서, 나의아버지와나를爲하여, 이김의榮光을얻는것이, 언제든지나의버릇이다- 아아, 그러나이榮光도오래지아니하여서부지럽시사라지고말것이다”(47) 이와 같이 매우 낭만적이고 감성이 풍부한 사내로 그려진다. “이젊은헥토르의가슴은, 사랑과, 可憐함과, 보드러움으로터질듯하였다. 그러나그는오래이곳에머무를수가업섯다. 다시戰場으로나아가야하겠다. 이것을생각하매헥토르의肝臟은흔어지는듯하였다.”(p. 48) 노자영의 헥토르는 전사로서도 손색이 없는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지만, 강력한 스킨십도 서슴지 않는 능숙한 ‘연애꾼’, ‘사랑둥이’로 노자영은 헥토르를 새롭게 그려낸다. “그것을 강혀참고, 그는마지막으로사랑하는안해안드로마키-의허리를다시금끌어안았다.”(48)

파리스와 헬레네의 침실, 헥토르와 안드로마케의 이별 장면은 원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노자영은 이 이야기를 전체 이야기의 한 가운데 배치하고 앞뒤의 거친 전투 장면과 비중을 거의 맞먹게 하였다. 이로써 일리아스의 이야기는 연애소설의 색채를 확연하게 띠게 된다.

## 2.5. 그밖에 몇 가지 장면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에게 분노하여 전투에서 빠지자, 전세는 그리스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헥토르가 앞장선 트로이아는 승승장구하며 그리스 연합군을 밀어붙이며, 급기야 함선이 있는 마지막 보루까지 위협한다. 패망의 위기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네스토르는 아가멤논에게 직언한다. 모든 사태가 아가멤논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니, 아킬레우스에게 사과하고 협조를 구하는 사절을 되도록 빨리 보내라고 조언한다. 그는 아가멤논의 가장 큰 잘못은 최고의 전사 아킬레우스의 ‘명예의 상’(ge-ras)이었던 처녀 브리세이스를 강제로 빼앗아 모욕을 준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를 달래고 전투로 복귀하게 하려면, 빼앗은 그녀를 돌려주는 한편, 그에 더해 많은 사과와 위로의 선물을 보내라고 한다. 이 모든 조치

는 모욕당한 전사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한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며, 거기에는 영웅주의적 가치관이 깔려 있다. 그러나 노자영은 아가멤논이 여자 포로를 빼앗은 것으로만 표현할 뿐, 그 여인이 의미하는 영웅주의적 가치를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다.

당신은 일즉勇士中에도第一가는 아킬레쓰와다토고, 그의陣으로브터 아름다운捕虜썩리씨-즈를 빼앗았시오. 그리하여그리샤第一의勇士로 하여곰, 憤을 참지 못하여戰場을 물너가게 하였시오.(63)

이런 방식으로 노자영은 ‘일리아스’를 하나의 연애소설로 각색한 것이다. 노자영의 『이리엣트이야기』 첫 부분이 호메로스의 원작이 시작하는 시점보다 훨씬 더 앞쪽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그 마지막 장면도 호메로스의 원작이 끝나는 시점보다 훨씬 더 긴 시간 이후에서 끝난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가 헥토르와 아킬레우스의 맞대결에서 절정에 이르고 헥토르의 장례식으로 끝나는 반면, 노자영의 『이리엣트이야기』는 헥토르의 장례식 이후에, 아킬레우스가 파리스의 화살에 맞아 죽는 이야기, 그리고 다시 파리스가 필록테테스의 화살에 맞아 죽는 이야기까지 담아낸다. 파리스의 죽음은 낭만주의적 연애소설의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아름다운 파리스는, 追放人<sup>46)</sup>이身數풀이로 어두운 밤에 노흔毒한 살에 마자, 헤레나의 보드러운 팔에 안기면서, 고요히 그 숨을 쉰 것이다. 썩에 흰 눈은 펄 펄 이다산 꼭대기에 날렸다.”(85)

그리고 트로이아 목마 전술에 의한 전쟁의 종말로 간략하게 소개되며, 헬레네와 메넬라오스의 재회와 귀향으로 끝을 맺는다.

세女神의 아름다움을 닮으므로브터, 아름다운 헤레나를 빼앗음을 말 매암 아이러난十年의트로이싸움은, 모든 슬픔과 온갖慘酷을 거쳐보내

46) 필록테테스

고, 이에그마지막幕을나리었다. 그러나헤레나는죽지아니하였다. 메네로-쓰는, 넷적의안해이오싸흠의原因者인이헤레나를다시안해로하야, 재스빗바다를다시건너멀니그리운故郷으로도라갔다. 그리하야平和로운가온대에스파르타나라를다사리고, 슬프든歲月을도리켜다시즐겁고福스러운살님을보내엇섯다.(86)

“아킬레우스의 파괴적인 진노”로 시작해서 “헥토르의 장례식”으로 끝나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영웅주의적 가치관을 부각하면서도, 그것이 갖는 한계를 비극적으로 보여준다. 이로써 호메로스는 전쟁을 겪으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전쟁처럼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조건과 인생의 의미를 묻는다. 그의 작품을 다 읽고 책장을 덮을 때 독자가 느끼는 먹먹함과 깊은 울림은 깊은 통찰에서 던져지는 물음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식민지 조선의 독자들에게는 너무 힘겨운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렇게 심오한 깨달음을 누리는 것을 조선인의 우민화를 회색하던 압제자들에게 검열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노자영의 『이리엣드이야기』는 아내를 빼앗긴 남자의 분노와 복수, 그리고 마침내 연적을 물리친 사나이의 행복한 결말로 맺어짐으로써 연애소설의 통쾌함을 고양하고 원작의 숭고한 비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 3. 맺음말을 대신해서

지금까지 서양의 최고 고전으로 꼽히는 『일리아스』가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노자영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노자영의 『이리엣드이야기』의 출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출판사들이 ‘세계문학’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일리아스’를 다

론 노자영의 책이 출판될 수 있었다. 교양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세계문학에 대한 지식과 감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점차 확산되고 있었던 것이다.<sup>47)</sup> 이런 출판문화의 변화 원인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일본과 미국 등 외국 생활에 경험이 있던 조선인들이 현지에서 접한 ‘세계문학’에 대한 경험이 큰 몫을 했을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을 반성하던 지식인들이 세계사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 인류의 필독서를 대중에게 소개하여야겠다는 계몽적인 의식이 큰 몫을 한 것이다. 이는 친일적인 행적을 보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필요성이었다.

둘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가 노자영에 의해 연애소설의 형식으로 출간되어 소비되었던 데는 당대 출판문화의 독특한 경향 때문이었다. 삼일운동 이후 출판에 대한 일본의 검열과 탄압이 강화되고, 이를 피하면서 출판사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장르가 바로 연애소설이었던 것이다. 특히 노자영이 이런 시류에 편승해서 작가로서 뿐만 아니라 출판인으로서 성공을 거둔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을 띠고 1929년에 조선일보에 소개된 ‘이리앗드’ 역시 연애소설의 분위기를 살려 원작을 소개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리아스’가 연애소설이 된 것은 시대적인 유행, 새로운 문화적, 사상적 변화 때문일 것이다. 조국마저 ‘남’으로 표현하여 사랑을 외칠 만큼 사랑과 연애는 1920년대를 수놓은 핵심 가치였다. 자유롭게 사랑하고 배우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자신만의 가정을 꾸밀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연애를 지고의 가치로 만들었다. 그런 분위기에서 거의 모든 것이 연

---

47) 1910년대 후반부터 『청춘』에서와 같이 세계문학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가 시작된 이후, 1920년에 들면 대중적 출판에서 세계문학은 흥미로운 읽을거리로 대중들에게 제시된다. 노자영을 포함, 『세계문학결작집 1』을 출간한 오천석, 『조선일보』에 「태서명작경개」를 연재한 심향산인(필명) 등, 이 시기의 작가들은 중역한 세계명작을 중심으로 이른 바 세계문학을 본격적으로 소개한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 기획 논문에 포함된 장문석의 연구를 참조 바람.

애의 가치로 환원되고 평가되었으니, 인류의 고전 ‘일리아스’도 그 운명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호메로스의 원작을 다른 방식으로 소개한 것도 있다. 1925년에 출간된 오천석의 『세계문학결작집』이 실린 ‘일리아드’가 그것이다. 오천석은 위에 소개한 첫 번째 이유에 충실하되, 두 번째 이유에서는 비껴서 있다. 그는 문학가이면서 동시에 교육자인 본분에 충실하게 원전의 내용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다시 충분히 다루고자 한다. 한편, 1940~41년에 립학수에 의해 두 권에 나누어 출간한 『일리아드』도 첫 번째 이유에 부응하는 작품인데, 전작들과는 달리 작품 전체를 충실하게 번역하려고 노력한 결과였다. 머리말을 중심으로 그의 의도를 분석한다면, ‘일리아스’가 노자영이나 조선일보와는 다른 방식으로 소비되고, 비로소 고전의 면모를 갖추며 대중들에게 다가서게 된 배경이나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도 다음 기회로 넘기고 일단 노자영의 ‘일리아스 읽기’에 관한 글은 여기에서 맺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논 저】

- 강대진(2010), 『일리아스, 영웅들의 전장에서 짝튼 운명의 서사시』, 그린비.
- 권보드래(2003), 『연애의 시대 — 1920년대 초반의 문화와 유행』, 현실문화연구.
- \_\_\_\_\_ (2009), 「춘성, 그 화려하고 쓸쓸한 생애 — 혹은 노자영과 그의 시대」, 노자영, 권보드래 책임편집, 『사랑의 불꽃, 반항(외)』, pp. 442-470.
- 김성연(2011), 「1920년대 번역계의 세대교체」, 『반교어문연구』 31, pp. 33-64.
- 김현(1997), 「아킬레우스의 분노와 제우스의 뜻」, 『서양고전학연구』 11, pp. 53-81.
- 김현주(2005), 「한국 대중 소설의 전개와 ‘독자’의 문제 — 연애라는 문화적 코드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13, pp. 23-59.
- 노자영(1923), 『이리엣트니야기』, 신생활사.
- 림학수(1940, 1941), 『일리아드』 1, 2, 학예사.
- 서상영(2013), 「노춘성 연구 — 『처녀의 회환』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37, pp. 253-280.
- 심향산인(心鄉山人, 1929), 「이리앗드」 1-5, 『조선일보』(연재).
- 알베르토 망구엘(2007), 김현 옮김(2012),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이펙트』, 서울: 세종서적, pp. 329-330.
- 오천석(1925), 『세계문학결작집』, 한성도서.
- 이정권(2014), 「유럽 및 독일 문화 속에 내재된 본질로서 결투 — 『오이디푸스 왕』부터 헐리우드 서부극까지」, 『독일어문학』 64, pp. 241-266.
- 이태숙(2008), 「근대출판과 베스트셀러 — 노자영의 연애서간을 중심으로」, 『안중인문학연구』 24, pp. 75-92.
- 최양옥(1999), 『노자영 시 연구』, 국학자료원.
- 赤司嚙花・石田春風 編(1904), 『楯の響 — イリアッド梗概』(방패 소리 — 일리아드 경개), 金港堂.
- 國民文庫刊行會(1915), 『イリアード』(일리아드), 國民文庫刊行會, pp. 1-761 (본문 전체의 번역은 馬場孤蝶가 담당).

- 小松武治 옮김(1923), 「イリアド」(일리아드), 『ホーマー物語』(호머 이야기), 大鏡閣, pp. 1-204.
- 富山房 編輯部 編(1913), 「イリアド物語」(일리아드 이야기, 正宗白鳥 編), 『世界文學物語』(세계문학 이야기), 富山房 pp. 247-380.
- 延川直臣 編(1914), 「イリアド物語」(일리아드 이야기), 『希臘羅馬神話』(희랍로마신화), 嵩山房, pp. 272-290.
- 正宗白鳥 編(1903), 『イリアド物語』(일리아드 이야기), 富山房.
- 松山思水(1913), 『ホーマー物語』(호머 이야기), 實業之日本社.
- Haight, E. H. (1947), “The Tale of Troy: An Early Romantic Approach”, *The Classical Journal*, 42 (5), pp. 261-269.
- Heubeck, A. (1974), *Die Homerische Frage*, Darmstadt.
- MacDonald, D. R. (2015), *The Gospels and Homer*, London: Rowman & Littlefield.
- Nagy, G. (1996), *Homeric Questions*, University of Texas Press.
- Roisman, H. M. (2008), “Helen and the Power of Erotic Love: From Homeric Contemplation to Hollywood Fantasy”, *College Literature*, 35 (4), pp. 127-150.
- West, M. (2011), “The Homeric Question Today”,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55 (4), p. 383-393.
- Wilamowitz-Moellendorff, U. von (1884), *Homerische Untersuch*, Berlin.
- Wolf, F. A. (1795), *Prolegomena ad Homerum*, Leipzig: Reclam.

원고 접수일: 2019년 7월 7일

심사 완료일: 2019년 8월 6일

게재 확정일: 2019년 8월 7일

ABSTRACT

---

Colonial Joseon's Reading of the *Iliad*:

Ro Ja-Young's Reading of the Text as "A Novel of Love"

Kim, Heon\*

How did colonial Joseon in 1920s read the *Iliad*, considered to be the best classic of western literature? This article answers this question by studying Choonsung Ro Ja-Young's *The Story of Iliad*. This is the first work that introduced the *Iliad* to Joseon. Joseon intellectuals in 1920s earnestly began to be interested in so-called world literature. As part of this trend, the *Iliad* was introduced to Joseon readers. However, Ro's work is not a translation of the Homeric original, but a kind of summary. Furthermore, he adds the story of Paris' judgement, which brought about the Trojan war, to the beginning of the *Iliad*'s plot, and at the end adds a story of happy ending, in which Menelaus and Helen return home together in victory after ten years of war. In this reconstruction of the story, Ro reads the *Iliad* as a love story and prefixes "a novel of love" to the title *The Story of Iliad*. In fact, he interposes romantic elements and an idea of "love for love's sake" that do not appear in the Homeric original. What is the reason for this? It is argued that Ro tried to actively meet the needs of the publishing business and the public. In order to avoid

---

\* Associate Professor,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Japanese censorship that has become stricter after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on the one hand, and to satisfy the needs of the public and to make the largest profit possible, publishing love story was most appropriate as a business strategy. However, such public needs and Ro's publishing strategy should be also considered as the result of the cultural trend in 1920s Joseon, which could be defined as "the time of love".

